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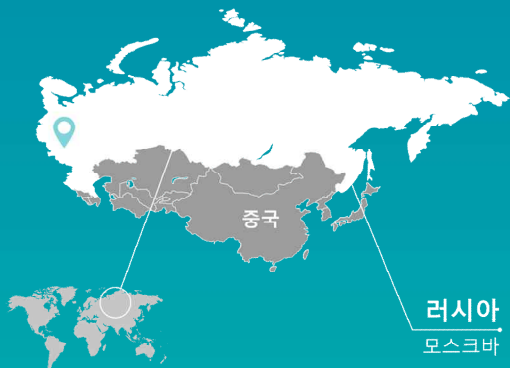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23년 3월 20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7,098천 km ² (2022) 	인구 1.4억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 협력 
GDP 2.1조 달러 (2022 ^e) 	1인당GDP 14,665달러 (2022 ^e) 	통화단위 Russian Ruble (RUB) 	환율(U\$기준) 68.48 (2022)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21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의 단절, 에너지 수출 축소 등 대외경제관계가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IMF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2년 -2.2% 역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0.3%, 2024년 2.1%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내에서 반전시위가 발생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3년 3월 현재 여전히 83%에 이르며 견고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어 미국, EU를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가들과 정치·경제관계가 악화되었음. 반면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 인도, 중동 및 중남미 일부 국가들과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 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주요협정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6,990	9,980	6,328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레일 및 철구조물
수입	10,630	17,357	14,817	유연탄,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49건, 30.52억 달러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 EU 에너지 수출 감소, 대 중국 수출은 증가

- 러시아 경제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7~20년 중 러시아 GDP의 18.1%, 재정수입의 38.3%, 수출의 58.3%를 석유·천연가스 부문이 점유하였음. 다만, 2022년 서방의 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GDP에서 점유하는 석유·천연 가스 부문의 비중은 2022년 1분기 21.7%에서 3분기에는 17.6%로 하락하였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2022년 3월 8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러시아산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으며, 2022년 12월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핵심 수입국인 EU가 에너지 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그림 1]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천연 가스 부문의 비중



자료: www.statista.com

- 향후 대러 에너지 제재 지속에 따라 주요 수출지역인 EU로의 에너지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출 감소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2022년 12월 서방의 대러 원유 수출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 이후, 2023년 2월 러시아 원유 수출액은 1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20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은 천연가스 41.1%, 원유 26.9%(원유 및 석유제품 34%), 석탄 46.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유럽 주요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비중은 독일(49%), 이탈리아(46%), 프랑스(24%) 등임. 또한 EU 주요국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비중은 폴란드(58%), 독일(30%), 네덜란드(23%), 벨기에(23%), 영국(11%) 등임.
- 반면, 러시아산 에너지의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방 주요국에 대한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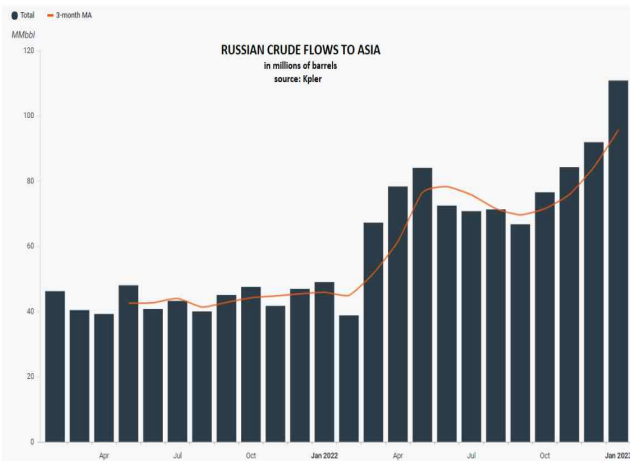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표 1] 서방의 대 러시아 에너지 부문 제재

분야	대상국 및 지역	주요 제재 내용	
수출	원유	미국, 영국	-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주요 7개국(G7), EU, 호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	- 2022년 12월부터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헝가리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의 송유관을 통한 수입 금지 - 2022년 12월부터 가격상한제 실시로 배럴당 60달러 이상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보험 및 운송 등 해상 서비스 금지
	천연가스	미국	-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금지
		독일	- 2021년 9월 완공된 러시아의 "Nord Stream-2" 가스관 승인 절차 중단
석유제품	미국	-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금지	
	주요 7개국, EU, 호주	- 2023년 2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제한 - 2023년 2월부터 디젤, 항공유 등 원유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 연료용 석유 등 원유 가격보다 낮은 제품의 경우 배럴당 45달러로 가격 상한제 시행	
		석탄	미국
투자	원유·천연가스·석탄·광물	EU	- 2022년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미국, EU	- 2022년 3월부터 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투자 제한

[그림 2] 러시아의 대 아시아 원유 수출 추이 (2022.4월~2023.1월)

단위: 백만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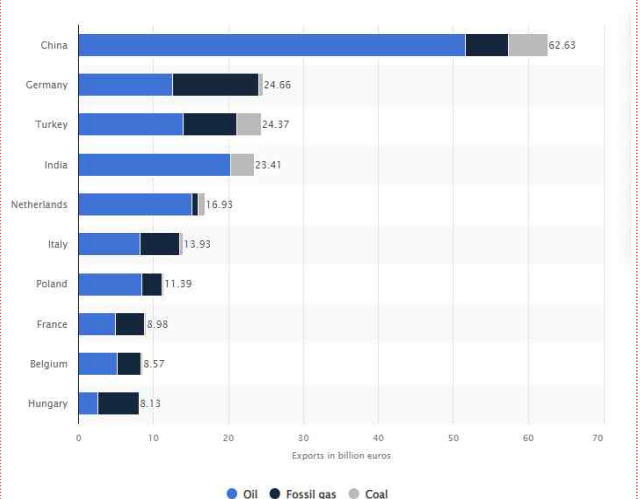


Volume to Asia more than doubles in 2022

자료: www.euractiv.com

[그림 3]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 (2022.2.24.~2023.2.8.)

단위: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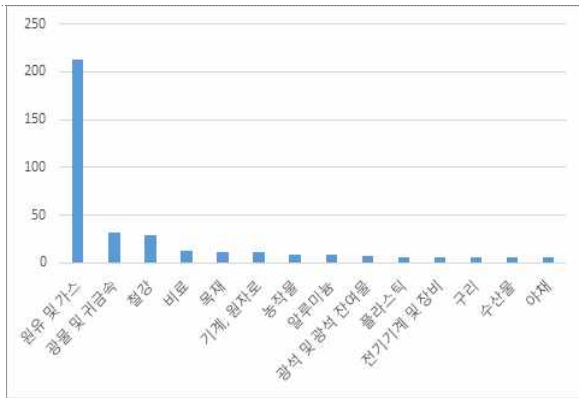
자료: www.statista.com

구조적취약성

- 원유·천연 가스는 2021년 기준 러시아 전체 수출의 5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물, 농산물, 목재 등 천연자원이 주요 수출품임. 제조업 부문의 수출비중은 낮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된 2022년 3월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부문 이외의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부품의 수입대체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결정하고 7월에는 주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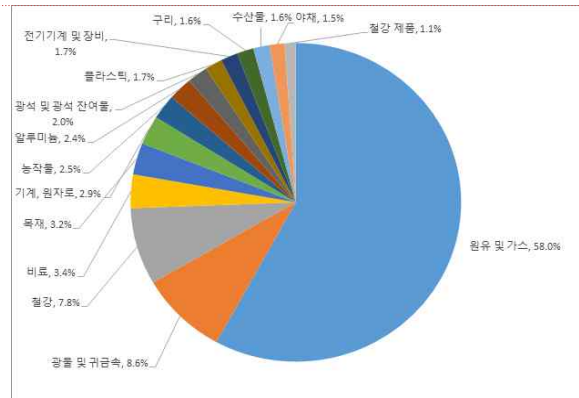
[그림 4]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21년)

단위: 십억 달러



[그림 5] 러시아 수출품의 비중(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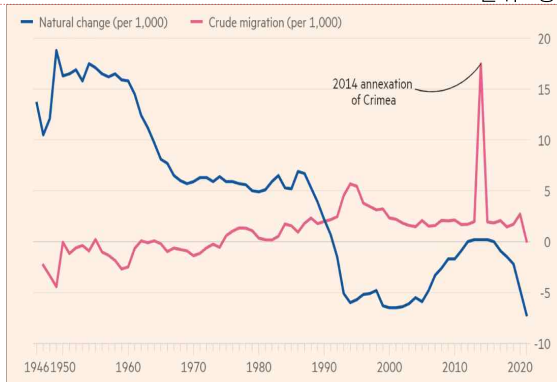


인구의 자연감소와 고급인력의 해외 이주는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

- 2021년 -0.4%를 기록한 러시아 인구증가율은 2025년 -0.11%, 2035년 -0.31%, 2045년 -0.25%로 마이너스 추세를 지속하여 2035년에는 러시아 인구가 1억 3,0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구 감소는 자연적 감소와 함께 해외 이주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서방과의 대립 지속으로 이주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해외 이주자의 40% 이상이 고등교육 이수자이며, 이러한 고급인력 유출은 러시아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그림 6] 러시아의 인구 변동과 해외 이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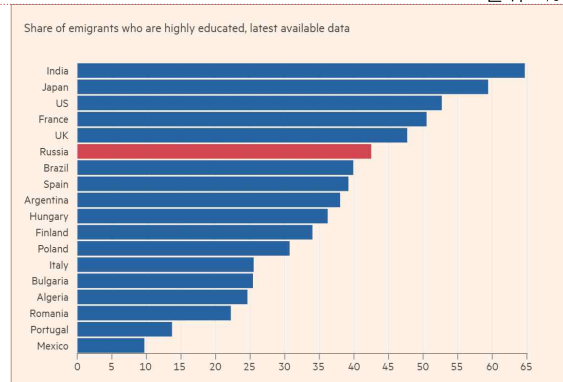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Financial Times

[그림 7] 국가별 러시아 해외 이주자의 고등교육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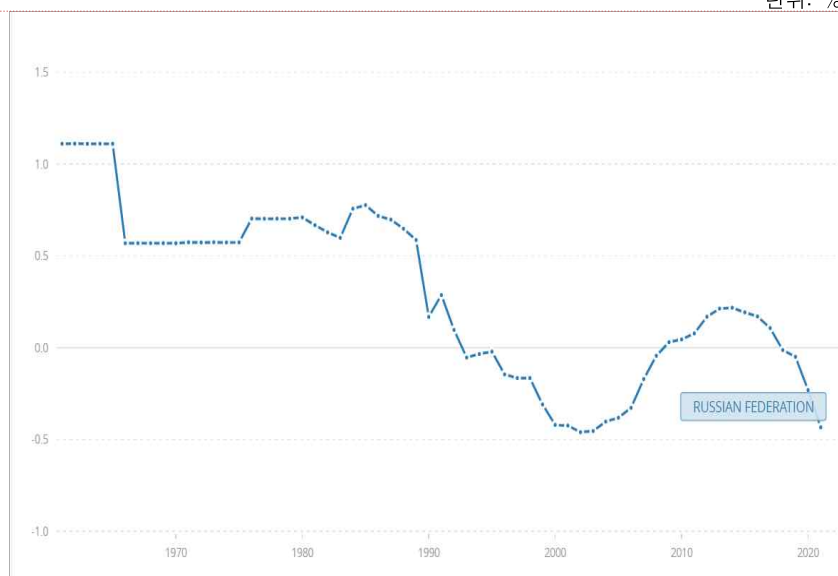


자료: Financial Times

구조적취약성

[그림 8] 러시아의 인구증가율 추이(1960~2020년)

단위: %



자료: data.worldbank.org

성장잠재력

서방의 대 러시아 수출 통제 및 관세 인상으로 러시아 산업 생산 전반에 악영향

- 미국과 EU,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서방 국가들은 2022년 2월 말 FDPR(해외직접제품 규칙)*에 따라 기존에는 수출통제를 받지 않았던 7개 분야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대 러시아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산업 생산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음.
 -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7개 수출통제 분야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며, 관련된 57개 품목이 적용 대상임.
- 아울러 미국과 EU는 정유 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에 관련된 물품이나 기술의 대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사치품의 대 러시아 수출도 제한하여 보석, 와인, 캐비어, 핸드백, 가죽제품, 신발, 의류 등 300유로 이상의 품목, 5만 유로 이상의 자동차도 대 러시아 수출이 제한됨.
- 미국 정부는 2023년 2월 말 대 러시아 제재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의 기존의 제재를 확대하고,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음.
- 다만,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일부 수출통제 제품을 다른 국가들을 통해 우회 수입하거나 중국산 제품의 수입량을 증대하여 제재의 영향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러시아는 2022년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제한된 EU와 주요 7개국(G7)이 생산하는 핵심 반도체와 첨단 기술제품 등을 튀르키예, 세르비아, UAE,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우회 수입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러시아는 2022년 중국산 집적회로의 수입을 2021년에 비해 2.4배로 증대하는 등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의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방의 대러 금융제재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점차 단절

- 서방은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에 대대적인 금융제재를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금융시장은 점차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단절되어 왔음. 서방의 대 러시아 금융 부문 제재는 크게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주요 국영 및 민간 은행들의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함.

성장잠재력

[표 2] 서방의 대 러시아 금융 부문 제재

분야	대상	주요 내용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러시아 중앙은행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로 대외준비자산(외환보유액) 거래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 (Sberbank, VTB, Gazprombank, VEB.RF, Rosselkhozbank, Credit Bank of Moscow, Alfa Bank, FC Bank Otkritie, Promsvyazbank, Sovcombank, Rosbank, Tinkoff Bank 등)	해외자산 동결, 자금 제공 금지
	러시아 국채 및 국영기업 채권	러시아 중앙은행, 재무부, 국부펀드 발행 국채에 대한 거래 제한, 국영기업 발행 채권에 대한 거래 제한
SWIFT 배제	제재 대상 국영 및 민간 금융기관	- 국제무역결제망인 SWIFT 이용 제한: VEB, VTB, Bank Otkritie, Promsvyazbank, Russian Agriculture Bank, Novikombank, Rossiya Bank, Sovcombank, Sberbank 등 *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2022년 2월 말의 제재에는 제외되었으나, 동 6월의 제재 대상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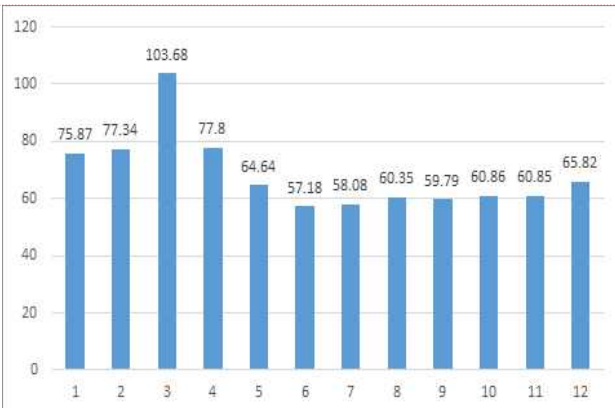
정책성과

러시아 정부의 탈달러화 및 금융시장 통제 정책으로 2022년 말까지 금융시장 안정 지속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고 위안화와 금의 비중을 늘리며 탈달러화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탈달러화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병합한 2014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의 비중은 2016년 12월의 40.4%에서 2022년 1월 10.9%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중 금의 비중은 15.1%에서 21.5%로 상승했음.
- 러시아 정부는 금융시장 및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시행하여, 미국과 EU 회원국들을 비롯한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외환거래 및 송금 제한, 대외채무 루블화 상환 등의 대응 제재를 취하였음.
- 또한 러시아인이 무역거래에서 획득한 외환의 일정 비율 의무 매각, 러시아인의 외환 국외반출 통제, 외국인의 외환거래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함.

[그림 9] 2022년 러시아 루블화 환율(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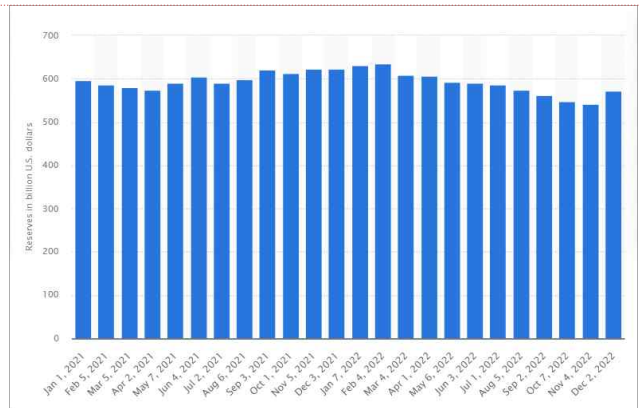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 10]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www.statista.com

- 2022년 말까지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서방의 제재에 대응한 러시아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중앙은행의 루블화 환율은 서방의 제재에 따라 2022년 3월 달러당 120루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 점차 하락하여 연말까지 월평균 달러당 60~70루블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음. 2022년 평균 달러당 루블화 환율은 68.48루블로 2020년(72.1루블) 및 2021년(73.65루블)보다 오히려 루블화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2월 말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7.5%까지 인하하였음. 이러한 정책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11.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러시아의 외환보유액도 비록 2022년 2월 초의 6,349억 달러보다는 감소했으나, 2023년 1월 초 5,820억 달러로 여전히 높은 액수를 유지하고 있음.

정책성과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자유도 순위 크게 하락

- 러시아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2023년 경제자유도 지수(Economic Freedom Score)¹⁾에서 평가대상 176개국 가운데 125위를 기록함. 이는 2021년 178개 평가대상국 중 92위에서 급격히 하락한 순위임.
- 러시아는 “매우 부자유”한 국가 그룹들 가운데서도 하위 순위에 위치해 있음. 유럽 지역의 전체 44개국 중에서는 43위를 기록하여, 러시아보다 낮은 순위의 유럽 국가는 벨라루스가 유일함.
- 러시아는 재산권, 사법 효율성, 정부의 청렴도 등 법 제도 측면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투자 및 금융자유도 등 시장개방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반면, 재정건전성, 세금 부담에서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러시아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2’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Global Freedom Scores(16점: “부자유”)와 Internet Freedom Scores(23점: “부자유”)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체 자유지수에서도 19점을 기록하여 “부자유” 평가를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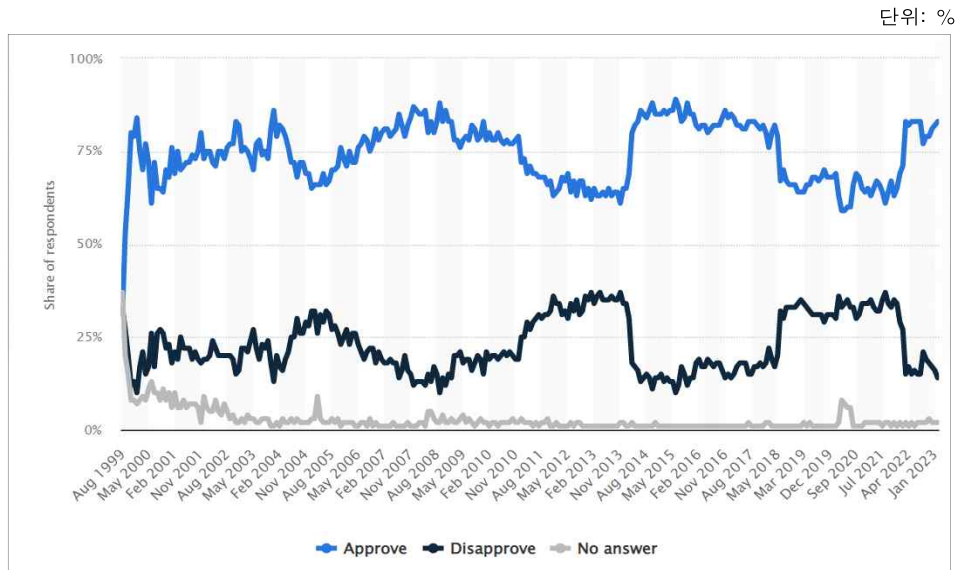
1) <https://www.heritage.org> 헤리티지 재단은 법 제도, 정부의 제한, 조정 효율성, 시장 개방성에서 각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정치안정

푸틴 대통령의 안정적 통치 체제 지속

- 러시아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발표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하여 2022년 말까지 75% 이상의 지지율이 지속되었음.
-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 21일부터 28일 사이 18세 이상 1,626명의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은 83%,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4%를 기록함.
-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22년 2월 71%에서 전쟁 이후 상승하여 2022년 5~6월 83%를 기록했음.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영토 수복이 이루어지던 9월 77%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 3월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는 시기에 다시 83%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1]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 추이



자료: www.levada.ru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초와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9월 말 전국적으로 반전 시위가 발생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시위가 중단되었음.
- 2022년 2월 24일 전쟁 발생 이후 3월 6일까지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들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하여 1만 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9월 21일 '부분 동원령' 발표 직후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진행되어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된 바 있음.

사회안정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

- 러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2022년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37위를 기록했다.
- 러시아의 순위는 2015년 119위(168개국)에서 2020년 129위(180개국), 2021년 136위(180개국)로 순위가 하락했으며, 정부의 부패 문제 해결 노력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전쟁 지속에 따른 청장년층의 해외 이주 증가는 사회 동요 요인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해외로 이주한 러시아 국민의 수는 10만 명 이상의 IT 인력을 포함하여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2022년 9월 러시아 정부의 '부분 동원령' 발표 이후 3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들이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사회를 동요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 이 가운데 20만 명은 국경을 접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으며, 다시 일부는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에 따라 러시아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IT 기업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방의 제재로 외국 기업과의 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러시아 기업들은 러시아어 사용이 가능하며 해외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으로 주로 이전하고 있음.
- 분야별로는 IT(정보통신), 연구 및 기술 개발,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이전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국제관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 지속으로 서방과의 대립 격화

- 2022년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소위 '특별 군사작전'을 언급한 이후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2023년 3월 현재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는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수도로 진격을 시도하며 공세를 취하였으나, 2022년 10월 무렵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퇴각하였음. 2023년 3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양국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음.

[그림 1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선의 변동

러시아 침공 이전(2022년 2월)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영토 수복(2022년 10월)



자료: BBC

러시아의 급속한 침공(2022년 3월)



현재의 전선(2023년 3월)



- Russian military control
- ▨ Limited Russian military control
- Held or regained by Ukraine
- Russia annexed Crimea in 2014
- Russian-backed separatist-held areas

-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재블린(Javelin) 대전차 미사일과 하이마스(HIMARS) 다연장 로켓 등 현대식 무기를 공급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및 EU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적대적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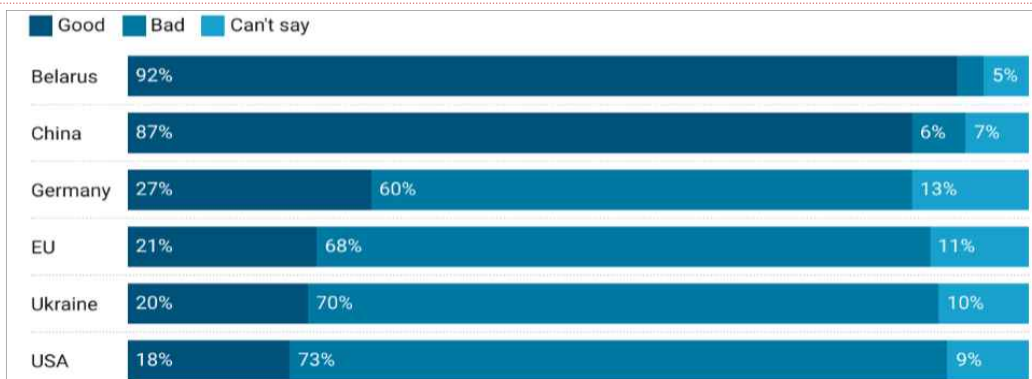
국제관계

러시아 사회의 서방에 대한 여론은 적대적으로 변동

- 2022년 11월 기준 레바다 센터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러시아 국민의 외국에 대한 여론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73%, EU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8%를 기록함.
- 미국과 EU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여론은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이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환되었음. 2015~21년에는 긍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였으나, 2022년 2월 이후 다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 반면, 중국에 대한 여론은 87%가 긍정적, 6%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확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그림 13] 러시아 국민의 외국에 대한 여론(2022.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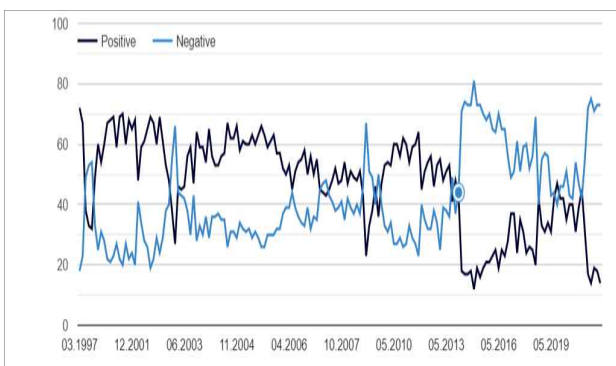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ww.levada.ru

[그림 14] 러시아 국민의 미국에 대한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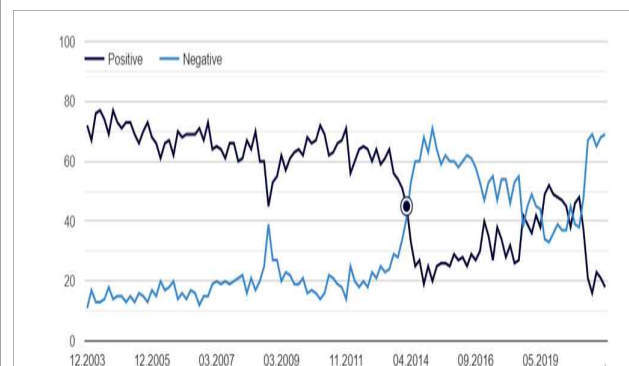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www.levada.ru>

[그림 15] 러시아 국민의 EU에 대한 여론

단위: %



국제관계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인도와의 협력 확대

-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으로 서방의 제재가 진행된 2014년 이후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중국은 2022년 서방의 대러 제재 확대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또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에너지·금융·우주·항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특히 탈달러화 정책을 추진하며 중국과의 금융협력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데,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달러화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위안화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 위안화의 비중은 2016년 12월 0.1%에서 2022년 1월에는 7.1%로 상승하였음.
-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결제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을 늘려 2022년 9월 기준 전체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이 4.27%를 기록했음. 이는 전 세계에서 홍콩, 영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임.
- 러시아는 중국과 에너지 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2022년 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25년 동안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100억 m³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총 1억 톤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천연가스 규모는 기존 계약 포함 연간 480억 m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 전체 천연가스 수입 규모의 25%에 달함.
- 아울러 러시아는 사할린 인근 해저에 위치한 유즈노 키린스코에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현재 가동 중인 '사할린-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을 통해 중국에 공급할 예정임.
- 인도 정부가 2022년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금지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증대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도 확대하고 있음. 2022년 4월 초에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인도 중앙은행 간에 대러 금융제재에 대응하여 양국 통화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결제 플랫폼 구축을 논의한 바 있음.

러시아 참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확대

-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하고 있는 브릭스(BRICS)²⁾의 회원국들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정치·경제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6월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기존 5개국 포함 18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브릭스 플러스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란, 아르헨티나가 가입을 신청하며 점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대외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4월 개최된 SCO 전문가 회의에서는 상호무역에서 회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9월 개최된 22차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15개국의 대표가 참여함.
- 기존의 친러시아 국가들인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등 EAEU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교역, 금융,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2)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협력체. 현재 세계 인구의 40%, 경제의 43%, 생산의 33%, 교역의 1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 상승 우려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러시아에 대한 여신 잔액은 169.2억 달러(중장기 149.7억 달러 및 단기 19.5억 달러)로 집계됨.
- 이 중 연체액은 2억 3,710만 달러(중장기 2억 820만 달러 및 단기 2,89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1.4% 수준이며, 2021년 9월 말 기준의 0.53%에 비해서는 상승한 수준임. 향후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에 따라 외환 부족이 심화될 경우 연체비율 상승이 우려됨.
- 다만, 2022년 9월 기준 러시아에 대한 ECA 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의 265.8억 달러에서 169.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러시아 연체비율(%): 0.44('20.3월) → 0.70('20.9월) → 0.49('21.3월) → 0.53('21.9월) → 1.4('22.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3.1)	7등급 (2022.3)
Moody's	미부여 (2022.3)	Ca (2022.3)
Fitch	미부여 (2022.3)	C (2022.3)

국제신용평가3사는 러시아 등급 대폭 하향 조정

- 2022년 2월 이후 S&P, Moody's, Fitch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격화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대폭 강등하였으며, 3월 초에는 등급 부여를 철회하였음. 이는 2022년 3월 11일 EU가 대러 4차 제재 발표를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러시아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한 데 따른 것임.

* Moody's : Baa3('19.2.8) → B3(2022.3.3.) → Ca('22.3.6.) → NR ('22.3.31)

Fitch : BBB('19.8.9) → B('22.3.2.) → C('22.3.8.) → NR ('22.3.3.25)

- OECD는 2022년 3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7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023년 1월 회의에서도 7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로 2022년 러시아 경제는 큰 폭의 역성장이 전망되었으나 -2.2%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선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서방은 러시아 금융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취했으며, 러시아는 국내 금융시장 통제와 중국 및 인도 등의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제재에 대응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내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견고한 통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3월 러시아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한 EU의 제재조치에 따라 국제신용평가 3사는 러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를 중단하였음.